

協會 그리고 會員

李 永 熙 / 희림건축설계사무소 · 본지 편집위원장

협회가 발족되어 제도적으로 우리의 권리와 의무가 정립된지 성년을 맞이한 차제, 매진일로의 급성장 속에 휘말려 비판없이 흘러온 우리의 과거를 재정리 해 보고 전문인으로서 사회 속에 우리의 위치를 견고히 구축할 수 있도록 화합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대처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는 지금 건축 3단체를 보유하고 있고 각 단체마다 그 개성이 뚜렷하나 그 구성원은 같은 우리들이며 건축문화 창달과 기술발전을 위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함에 있어서는 구분 될 수는 없다. 중에도 건축사협회는 방대한 조직과 예산편성이 용이하게끔 제도적 뒷받침이 타단체보다 비교적 우위에 있다.

협회가 성년이 되도록 오직 조직 유지에만 급급하였는가, 왜 대사회적 「이미지」를 개선하지 못하였는가, 왜 이러한 불편한 일들을 협회 차원에서 풀어 나가지 못하는가 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회원이 많을줄 안다. 원인은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이다.

■ 다같이 진지한 참여를

연간 막대한 예산을 개개인이 부담하면서 자기가 소속된 협회가 한 가지 요식경유처라고만 생각하는 회원은 많지 않은지. 협회에 자주 드나드는 것만이 참여가 아니다. 무관심이야말로 우리의 공통되고 절실한 목적달성에 저해되는 요소가 될 것이다.

단편적으로 많은 할말을 갖고 있으면서도 정리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기를 기피하는 회원은 많지 않은가.

얼마 전 건축사법 개정에 따른 의견 취합을 위하여 전국 회원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응답 비율은 30%에 지나지 않았다.

우리의 행동반경을 이것저것 읊어 매는 모순되고 불합리한 제약을 개정코자 건의하사는데 할말이 없단 말인가. 또한 응답 내용을 보면 가도 아니고 부도 아니어서 애매모호하기 그지 없다.

특히 응답자 중에서도 서울·부산·대구 등 대도시 지역이 극히 저조하다.

우리는 다행히 월간 「建築士誌」를 갖고 있다. 기고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으므로 회지가 우리의 현안문제 의견수렴의 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회지는 영원한 우리의 기록이며 대 사회의 유일한 홍보수단이 될 것이다.

■ 우리의 Morality

대형 설계조직을 경영하는 회원이나 소규모 설계팀을 이끌어 가는 회원이든 간에 부여된 사회적 의무는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 크든 작든 간에 사회의 公器를 창출하는 작업이기에 나름대로의 온 정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사회가 요구하는 「건축사」는 고도의 전문인인 동시에 성숙된 인간이다. 이 근원적인 마음의 자세가 결여되었기 때문에 오늘의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우리 모두가 양질의 도서를 제작하겠다는 의욕이 충만되어 있다면 알팍한 현실에 타협 될 수도 없고 위법건축물의 발생에 따른 방지 대책으로 고심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한개체의 파오는 그 구성원 전체를 나락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는다. 사회의 눈은 좋은 결과에는 무관심하고 나쁜 결과만을 부각시키는 습성이 있

다. 전체가 개체를 보호할 의무는 있으나 보호받을 가치 기준을 정립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근간 주문주택의 호화로운 광고를 많이 보았다. 설계·시공·감리의 일괄수주 방식, 다시 말해서 Turnkey System이라 할까. 여하한 형태이든 양질의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편리하게 공급한다는 보장이 있다면 바람직 할지는 모르겠으나 건축사 고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전체에 누를 끼치면서 위장설계도서를 남발하는 회원이 있지 않나해서 심히 걱정스럽다. 남이 작성한 설계도서에 거리낌 없이 서명하는 건축사가 있는 한 우리의 사회적 지위는 약화되기 마련이다. 캄바스에 마지막 사인을 하는 화가의 긍지를 우리도 갖을 수가 있다.

두서없이 우리의 Moral을 생각해 보는 자리에서 이러한 사례도 한번 집고 넘어 가보자. 모 공기관에서 회관 신축을 위한 지명 현상설계를 실시한 적이 있다. 심사과정의 곡절은 덮어 두고, 결과는 지명위촉 받은자 이외의 제3자에게 실시설계 계약 체결이 되었다.

지명현상 설계의 과정을 알기 때문에 어느 제3자는 본설계지명 요청을 점잖게 거절하였고 어느 제3자는 과정을 알면서도 쾌히 승락하였다. 천재와 바보는 과연 종이 한장 차인가.

후배는 선배를 존경하고 선배는 후배를 아껴주며, 동료간의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는 풍토는 언제 정립될 것인가. 연대적인 의식이 결여된 자기 보호에만 집착할 경우 근본적인 목적은 서로 상치될 것이며 의견의 통일은 성립될 수 없다. 나아가서 우리의 권익보장을 위한 대사회 설득력 또한 약화 될 것이다.